2025년 06호

스웨덴의 팝 프로듀서들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스웨덴의 팝 프로듀서들

2025년 06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스웨덴의 '팝 메이커'들

1. 스웨덴식 팝 음악의 태동과 아바(ABBA)
2. 포스트-아바 시대의 스웨덴 음악가들
3. 아티스트보다 송라이터, 음악저작권 수출 3위의 초강국으로
4. 현재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웨덴의 팝 작곡가들
5. 결론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스웨덴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5. 11. 11.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콘텐츠와 세계로 미래로

스웨덴의 팝 프로듀서들

I. 스웨덴의 '팝 메이커'들

순서

1. 스웨덴식 팝 음악의 태동과 아바(ABBA)
2. 포스트-아바 시대의 스웨덴 음악가들
3. 아티스트보다 송라이터, 음악저작권 수출 3위의 초강국으로
4. 현재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웨덴의 팝 작곡가들
5. 결론

1 스웨덴식 팝 음악의 태동과 아바(ABBA)

- 1950, 60 년대 스웨덴에서는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미권 팝, 록, 재즈 음악이 대중음악의 주류로서 유행하고 있었음. 1970 년대 들어 스웨덴에는 새로운 물결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존의 재즈 빅밴드 편성에 독일의 신나는 슐라거(schlager)식 레퍼토리를 결합한 단스반드(dansband) 음악이었음. 단스반드 음악은 인접한 노르웨이, 덴마크에까지 퍼져나가면서 1980 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림.

- 그러나 단스반드 음악은 다시 영미권에서 날아온 디스코의 강렬한 물결에 밀리기 시작함. 슐라거와 단스반드의 신나고 멜로디컬한 전통을 디스코의 첨단성과 결합해 성공한 그룹이 바로 스톡홀름에서 결성된 혼성 4 인조 팝 그룹 아바(ABBA)였음. 아바는 1974 년, 유럽의 국가 대항 노래 경연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스웨덴 대표로 나가 'Waterloo'란 곡으로 1 위를 차지하면서 신드롬을 일으킴.

- 아바의 우승과 이후 선전은 향후 스웨덴 팝 발전과 해외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1970 년대 중반, 한시적으로 자국어가 아닌 가사의 곡에게도 문호를 열었는데, 아바의 영어 곡 'Waterloo'가 그 혜택을 누린 케이스였음. 아바는 이후 거의 모든 곡을 영어로 발표하면서 자국의 한계를 넘어 유럽은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는 발판을

마련함. 특히 아바 멤버 중 작곡·편곡을 주로 담당한 베니 안데르손, 비에른 울바에우스는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존 레넌에 비견되는 멜로디 메이커 듀오로 회자되며 10 년간 'Dancing Queen' 'I Have a Dream' 'SOS' 'Gimme! Gimme! Gimme!' 'Mamma Mia' 등 수많은 곡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킴. 이들의 곡으로만 구성한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 미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시대를 넘어 팝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함.

2 포스트-아바 시대의 스웨덴 음악가들

- 아바의 등장과 해체(1982 년) 이후 스웨덴 음악계는 작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충전해. 아바의 후예 가운데 1980 년대에는 'It Must Have Been Love'의 록시트(Roxette), 'Final Countdown'의 유럽, 전기기타 비르투오소 잉베이 말름스틴 등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세련된 사운드를 결합한 팝, 록, 메탈 장르에서 스웨덴의 저력을 보여줌.

- 1990 년대에는 아바를 연상시키는 혼성 4 인조 팝 그룹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All That She Wants' ''The Sign'로 빌보드 싱글차트와 UK 싱글차트 정상을 밟으면서 '스위디시 인베이전'이란 헤드라인을 뽑아내. 2000 년대부터는 솔로 팝 가수와 EDM DJ/프로듀서들이 두각을 나타내. 2000 년대에 'Dancing on My Own'의 로빈이 지핀 걸크러시 이미지와 웰메이드 댄스 팝의 결합으로 지핀 불은 2010 년대에 팝스타 자라 라슨, 토베 로가 이어 받았고,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신드롬을 이끈 DJ 아비치, 스위디시 하우스 마피아가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음악 강국으로서 스웨덴의 기치를 만방에 알렸음.

3 아티스트보다 송라이터, 음악저작권 수출 3위의 초강국으로

- 1990 년대부터 스웨덴은 아티스트보다 송라이터(작사가·작곡가)의 역량으로 세계 3 위의 음악 저작권 수출국으로 떠오름. 그 물결을 선도한 이가 프로듀서 데니스 팝(본명 Dag Krister Volle·1963~1998)으로 1992 년 스톡홀름 시내에 음악 스튜디오 셰이론(Cheiron)를 설립하고 미국의 아이돌형 신인 팝 가수들인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싱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의 음악 제작을 도맡음.

- 데니스 팝이 1998 년 위암으로 요절하자 그의 조수이자 서브 프로듀서였던 맥스 마틴(본명 Karl Martin Sandberg)이 그가 진행 중이던 미국 틴 팝 아이돌의 프로젝트들을 넘겨받게 됐고, 마틴은 그들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아예 제작과 삶의 터전을 미국 본토로 옮기면서 스웨덴계 미국 프로듀서의 전성기에 씨앗 역할을 하게 됨.

- 그 이후 데니스 팝의 후손이자 맥스 마틴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원, 셸백, 블러드샤이&아반트, 오스카 홀터 등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니퍼 로페즈,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 등 21 세기 팝스타의 히트곡들을 양산하면서 스웨덴은 미국 음악계에서 강력한 바이킹 군단을 구축함. 맥스 마틴과 셸백(본명 Karl Johan Schuster)은 최근 미국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 'The Life of a Showgirl'의 메인 프로듀서를 공동으로 맡으며 다시 한 번 주목받는 상황. 이 앨범은 첫 주에만 400 만 장 넘게 팔려나가며 영국 가수 아델의 한 주간 최다 음반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음.

- 한편으로는 본토인 스웨덴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더 케널, 스칸디나비안 송스 등 다양한 퍼블리싱 컴퍼니가 보유한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들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 수준 높은 곡을 만들어 수출함. 일본의 제이팝과 애니메이션 사운드트랙 작업을 통해 케이팝과 연이 닿은 다수의 작곡가들은 이후 케이팝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2010 년대와 2020 년대에 미국 빌보드 차트와 UK 차트를 우회적으로 공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해 거두고 있는 실정임.

4 현재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웨덴의 팝 작곡가들

- **맥스 마틴: 1998 년부터 2025 년까지 자신이 작곡에 참여한 총 28 개의 곡을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에 올려놓음. 이는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32 곡)에 이어 작곡가로서 빌보드 역사상 두 번째의 기록으로서 비틀스의 고 존 레넌(26 곡)을 제친 상황.**

|그림 1| 맥스 마틴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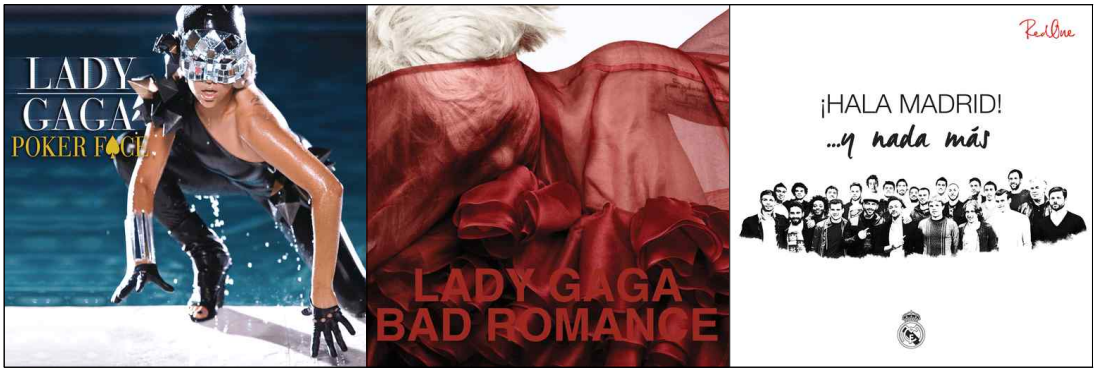
- 대표곡

  ·· Britney Spears '...Baby One More Time'
  ·· Maroon 5 'One More Night'
  ·· Coldplay 'My Universe (with BTS)'
  ·· Taylor Swift 'The Fate of Ophelia'

- **레드원(본명 Nadir Khayat): 모로코 태생의 스웨덴인 싱어송라이터/프로듀서. 레이디 가가, 제니퍼 로페즈, 원 디렉션 등 팝스타의 프로듀서로 스타덤에 오름. 특히 레이디 가가의 초기 메가 히트곡인 'Poker Face' 'Just Dance' 'Bad Romance'를 가가와 공동 작곡하면서 가가 사운드의 초석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움.**

|그림 2| 레드원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 대표곡
  - Lady Gaga 'Poker Face'
  - Lady Gaga 'Bad Romance'
  - 'Hala Madrid... y nada más' (FC 레알 마드리드 주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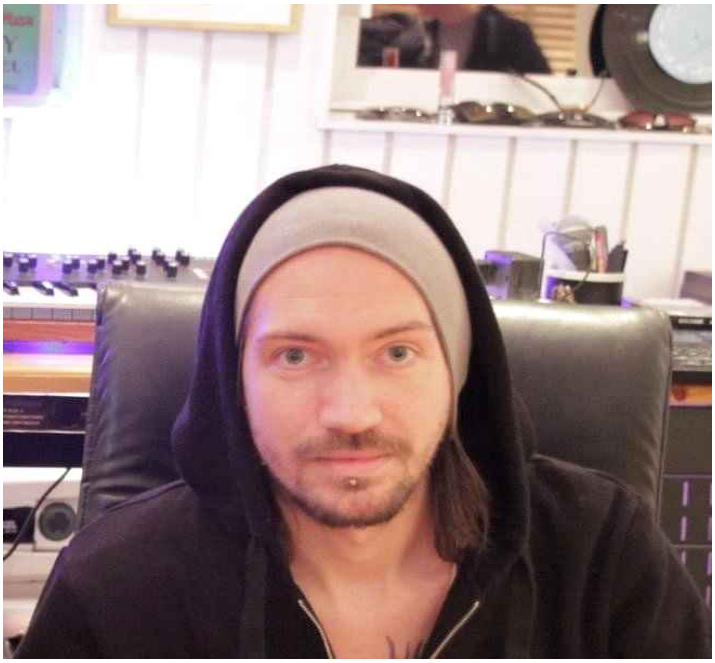


- **셀백 (본명 Karl Johan Schuster): 10 대 시절부터 블랙 메탈, 멜로딕 데스 메탈, 둠 메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스웨덴 언더그라운드 메탈 신에서 활약함. 1985 년생으로 맥스 마틴의 조카뻘이지만 10 대 중반부터 마틴에게 데모를 보냈고 마침내 2007 년 마틴의 제작 회사에 합류하며 핑크,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히트곡을 마틴과 합작했고 이후 에이브릴 라빈,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아델의 프로듀서로 일가를 이룸.**

|그림 3| 셀백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 대표곡
  - Usher ‘DJ Got Us Fallin’ in Love’
  - Maroon 5 ‘Moves Like Jagger (feat. Christina Aguilera)’
  - Taylor Swift ‘Shake It Off’

- **오스카 홀터: 맥스 마틴, 셀백과 함께 작곡/프로듀싱 크루 '울프 커즌스(Wolf Cousins)'의 멤버로 활약하며 수많은 팝 히트곡을 양산함. 특히 더 위켄드의 싱글 'Blinding Lights'를 공동 작곡, 공동 편곡 함으로써 2020 년대 팝 음악계에 복고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신스팝의 트렌드를 가져오는 데 일조한 프로듀서.**



|그림 4| 오스카 홀터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 대표곡
  - The Weeknd 'Take My Breath'
  - The Weeknd 'Blinding Lights'
  - Coldplay 'My Universe (with BTS)'

5 결론

- 스웨덴은 1970 년대 아바의 세계적 성공 이후 팝 아티스트와 팝 송라이터, 팝 프로듀서에 걸쳐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스웨덴에서 출발해 세계를 투어하는 팝스타, 스웨덴에서 세계 각 지역의 인기 가수에게 곡을 수출하는 작곡가, 스웨덴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도 상주하면서 최고의 팝스타들의 음악을 기획하고 매만지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공급하면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 위의 음악 저작권 수출대국으로 부상해. 소규모이며 척박한 내수 시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스웨덴 음악계의 발전 비결과 비즈니스 모델, 성장 지속성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해 진화시킬 수 있다면, 스웨덴은 케이팝에 곡을 제공하는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넘어 20 세기 주류를 이룬 영미권 팝 시장에 대항해 새로운 대안의 문화 거상으로서 경쟁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함.

스웨덴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천소현 센터장	shc@kocca.kr

스웨덴 내 주요 팝 프로듀서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천소현 (스웨덴 비즈니스센터장)
집필자	임희윤 (음악평론가)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